

## 이명박 서울시장 피습당할 뻔

경찰, 둔기들고 접근 노숙자 검거

이명박 서울시장이 술에 취한 노숙자에게 둔기로 봉변당할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4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시장 현관에서 이명박 시장이 관용차에 오르려는 순간 노숙자 최모(40)씨가 둔기를 들고 다가서다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최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길이 43cm의 망치를 들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이 시장이 승용차에 오른 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노숙자가 망치를 들고 있었다"며 "시청 주변에서 자주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은 최씨를 상해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에서 이날 새벽 소주 2~3병을 마신 뒤 서울시장 주변에서 노숙했고 망치는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며 이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승용차에 누가 타는지 전혀 몰랐고 사람을 해칠 생각도 없었다"며 "차가 과속을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려 다가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가 정치적 의도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특정 정당 가입 당비 납부

목포시청 공무원 8명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목포시 공무원 28명 가운데 5급 공무원 A(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당원 모집인 K(여·45)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포시청 공무원인 A씨 등 8명은 친척 및 지인 등의 입당 권유를 받고 지난해 민주당 전남 도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명은 당원들이 의 목적으로 납부하는 당비까지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실시된 목포시장 보궐선거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은 목포시 외에도 영암(2명)·무안(2명)·신안군(2명)의 지방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정당가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평양~광주 90분거리 58년 걸렸다



“반갑습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14일 오전 광주공항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이 환영하는 시민들 사이로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북측 대표단을 싣고 광주공항에 도착한 북한의 고려항공 IL62-KOR615편이 대한항공 비행기와 함께 나란히 계류돼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6·15 통일축전 북 대표단 147명 광주 도착

서해 직항로 이용...광주공항 개항후 첫 경사

700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가깝지 만 먼 거리였다. 지난 1948년 광주공항이 개항한 후 평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광주로 오는데 꼬박 58년이 걸렸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 147명(당국 대표 19명·민간 대표 128명)은 14일 오전 9시30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 KOR 615편(187인승)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먼저 서해로 향했다. 중국 측 항공관제구역에 들어가기 직전인 '북위 38도 51분·동경 124도 15분' 지점에 들어서서 서해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휴전선을 통과하는 직항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서해 상공을 경유하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것이다.

40여분 뒤 비행기는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평양관제소가 담당하던 관제권도 인천관제소로 변경됐다. 비행기는 남한의 영토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서해 상공을 종단(縱斷)하다 광주와 수평선상에 놓인 '북위 34도 40분·동경 124도 25분' 지점에 이르러서야 기수를 동쪽으로 변경했다.

오전 11시, 'KOR 615'기는 'c'자 형태의 비행을 끝내고 마침내 광주의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공항이 개항된 후 처음으로 맞는 북측의 '손님'이었다.

빗발이 날렸지만 비행기는 사뭇한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인공기를 새긴 비행기가 착륙한 곳 바로 옆에는 태극 무늬를 단 대한항공 비행기가 마중했다. 10개월 만에 재회하는 대표단을 축하하는 듯했다.

북측 대표단은 '보딩 브리지'(boarding bridge·공항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공항으로 들어와 ▲검역 ▲법무 ▲세관 검색 ▲세관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출구에 모습을 나타냈다.



타냈다. 남성들은 넥타이를 찬 정장, 여성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채였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100여명의 남측 환영단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조국 통일'을 외쳤고, 북측 대표단도 미리 준비한 한반도기로 답례했다.

민간대표단인 김인옥씨는 "광주는 일제시대 때는 함일학생운동을, 군사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펼친 자긍심이 강한 도시로 알고 있다"면서 "같은 피를 나눈 동포들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통일음악단'의 작곡가라는 한 남성은 "남한도 다 같은 우리 땅"이라면서 "오는 15일 열리는 축하공연에서 북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환영하는 정진욱(44·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북녘 동포들이 민주 성지 광주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이번 축전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한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자"고 강조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보수단체 '6·15 축전' 저지 움직임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막과 함께 '반(反)북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주에 집결, 행사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반대하기 위해 국내 3개의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광주로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북측 대표단의 입국장소인 광주공항과 북측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배를 하는 국립 5·18 민주묘지 등에서 '6·15선언 반대'와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경찰과 수차례 승강이를 벌였다. 광주에 온 단체 중 'DJ 남북 저지 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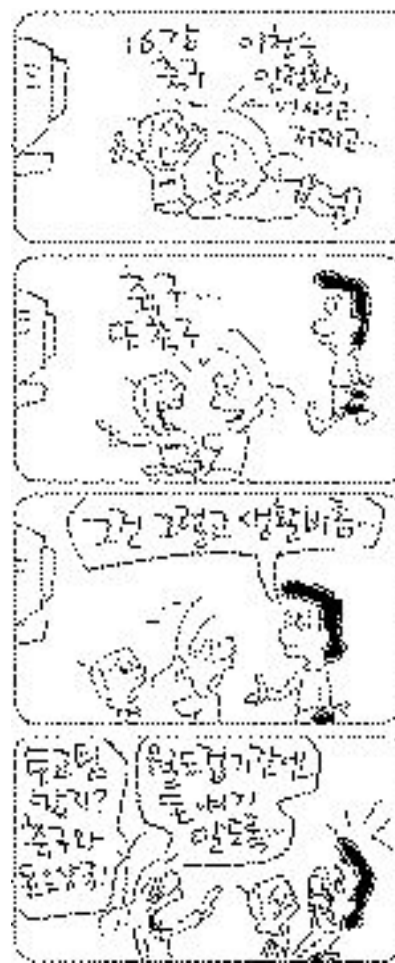
결사대' 회원 4명은 오전 11시께 광주공항에서 입국 중인 북측 대표단을 향해 '김정일 경건 끝장내고, 북한 민주화 실현하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제지를 받았다.

이들 중 박모(40·경기도 용인시)씨가 광주 광산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1시간 뒤 풀려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탈북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 대표단의 입국 반대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날 서울 등지에서 13명의 회원과

함께 광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의 '(사)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등의 보수단체들도 5·18 묘지 앞에서 '국민동의 없는 6·15선언 폐기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행사장 주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스포츠·동영상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 공익요원, 재판 앞두고 자살

14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S아파트 화단에서 송모(24)씨가 옆드린 채 숨진 채 발견됐다. 공익요원인 송씨는 근무지 무단이탈한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한국 축구팀에 आयुहा자 '불끈' 폭행

○호프집에서 한국-토고전을 시청하던 중 옆자리 응원객이 한국 대표팀에게 आयुहा 보내자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3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K호프집 앞길에서 토고전을 응원하다가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박모(48)씨에게 500cc 맥주컵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김모(38)씨를 입건.

○김씨는 전반기 직후 박씨가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다 한국팀이 역전승했다는 말에 서로 화해했다고. /이승배기자 lsb54@